

목포대·순천대 신설 약학대학 운용 방향

공공의료·글로벌 신약개발 거점 육성

(글로벌+로컬)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6년제 신설 약학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각각 약대 2011년 모집정원을 25명 배정받았으며, 향후 학부 입학정원은 최소 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약대 신설로 인해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 농어촌 찾아가는 의료체제 구축 순천대, 천연물 신약연구소 설립 등 추진

◇목포대=목포대는 2011년 모집정원 25명을 배정받았으며, 또한 향후 연구 중심 약대로 운영되도록 학부 입학정원은 최소 30명과 대학원은 30~4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 양성체제를 구비해 총 편제정원은 약 2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후 약학·의학·이공계 등 관련 전문가·단체·산업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신청서 평가)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2차 심사(면담평가, 현지실사)를 받아 약대 설립이 확정됐다.

목포대는 지난 해 5월부터 약학대학추진 T/F팀을 구성해 설립추진을 준비했으며, 9월 대학병원, 제약회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연구 및 실무실습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도 가졌다.

목포대는 약대가 설치됨으로써 다도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의료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농어촌 친화적 능동형 의료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월에는 '천연자원 신약개발 및 약학전문인력 양성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교과부에 목포대 약대 정원배정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전남 서남권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 강화에 따른 대학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 관계자는 "약학대학 운영은 우선 약학대학 건물을 내년 2월까지 완공

할 예정이며, 국내외의 우수한 교수들 유치해 약학 인력 우수인재 육성과 신약개발 및 공공의료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 순천대의 약학대학 유지성공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통한 바이오 주권 확보라는 순천대의 비전이 타 경쟁대학을 압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래 고부가가치 제약 산업에 종사할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학사와 석사를 연계한 6년제 연구약학제 등 새로운 학제 도입, 노벨상수상자(로저 처먼 교수)를 보유한 미국 UC San Diego 약대와와 공동연구, 순천시가 지원한 천연물신약소재개발 연구센터 운영(100억원 규모)과 글로벌 기업의 재정지원 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순천대가 지리산권과 남해안 등 풍부한 천연물 재료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순천대는 지역활당체 학생 모집과 연구 약학 트랙학생의 6년(학부4년+대학원2년) 전액 장학금 지급 등으로 통해 우수한 인재들 모집·양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급인 미국의 저명한 교수들 초빙함과 동시에 신약개발연구

팀을 꾸려, 순천대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약개발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광양만권주변의 산업단지과 관련한 호흡기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할 환경약학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과 미국 UC San Diego약대와 협력해 천연물 신약연구소 설립하고, 순천 천연물신약소재개발 연구센터와 인근병원 및 제약회사 등과 임상시험 및 신약생산을 해나갈 방침이다. 순천대는 이미 순천시와 천연물신약소재개발연구소 운영계약을 맺었고 (주)녹십자, 명인제약, 키토라이프, 한국인스팜등과도 협력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순천대는 4일 순천시와 약학대학 유치 성공과 관련 관·학협약식을 갖고 순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대가 약대유치를 통해 세계시장 1조달러에 달하는 의약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지역의 풍부한 신약자원은 물론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순천대 약대가 글로벌 신약개발의 메카가 되고 향후 수년 내에 세계가 놀랄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iga@



새내기 메이크업 이렇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미용학과는 최근 교내 황룡관 대강당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메이크업·네일아트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여대 제공)

2002년 노벨 화학상 수상 쿠르트 뷔트리히 교수

'단백질의 세계'... 조선대 특별강연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쿠르트 뷔트리히(Kurt Wuthrich) 교수가 조선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갖는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뷔트리히 교수는 핵자기공명법(Nuclear Magnetic Resonance)을 이용해 용액 속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미국의 존펜 및 일본의 고이치 다나카와 함께 2002년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조선대 BK21 단백질활성제에 인력양성사업팀(팀장 이정섭) 주관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석울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특별강연회에서 쿠르트 교수는 '단백질의 세계 - 구조생물학에서 구조유전체학까지(The Protein Universe-from Structural Biology to Structural Genomics)'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 서석울 101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생명공학 관련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안태훈 교수

마취과학술지 논문심사위원장

안태훈 조선대 교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가 대한마취과학회와 대한마취과학술지 우수논문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2002년부터 대한마취과학회 학술지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저자들의 학술적 의욕을 고무시킴으로써 대한마취과학회 학술적 분위기 조성과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이동로봇팀

반도체 설계 경진 최우수팀

광주대 전기전자공학과 이동로봇팀(지도교수 문철홍)이 최근 열린 '전국 대학 동아리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광주대에 따르면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이동로봇팀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무선통신방식인 지그비 통신을 이용한 조형제어시스템 설계를 출품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이 조형제어시스템은 자연의 빛을 모두 구현할 수 있으며 스탠드, 인테리어, 경관조명 등 실용화가 가능하다. 특히 사람의 감정변화에 맞춰 빛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도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약학대학 조감도.



순천대 약학대학 조감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중절강대 한국연구소

학술교류 협정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강래)은 최근 중국 절강대학교 한국연구소(소장 김건인)와 상호 방문학자 파견 및 공동연구를 골자로 하는 국제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중국 안휘대학교 휘화연구소에 이어 세 번째 교류 협정으로 호남학 연구원은 '호남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문한국(HK)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래 원장은 "교류협정을 통해 연구소 간의 학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의 전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절강대 한국연구소는 1993년 한국 대우재단의 지원에 의해 설립됐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최근까지 35권에 이르는 '한국연구총서'를 간행했다. 또 이 연구소 설립에 중국사 및 한중교류사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긴 한국의 김준연, 전해중 선생 등이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들은 평생 모은 방대한 양의 연구 자료를 연구소에 기증하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러시아' (Eye Laser Asia) eye clinic,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大山프리모남녀가발', highlighting a 50% discount and various wig styles.